

# [인터뷰] 코로나19 이후 중국투자자와 비즈니스 기회 이곳에... 고영화 고문

재택중심 4대 신경제, 신기건 7대 분야 주목해야  
SV인베스트먼트 고 고문 뉴비즈 신 트렌드 전망

-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5:05
-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46

[뉴스핌 베이징 = 최현규 특파원] "타오바오 등의 플랫폼이 종전 진열 판매 위주에서 생방송 판매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던 구매와 오락 분야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도 이용 계층의 저변이 노년층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레디 투 쿡(RTC, Ready To Cook)이 보편화하면서 식재료와 주방용품 등 자가 요리 관련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마지막 날인 31일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방향과 신산업 뉴비즈 트렌드'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IT 신기술 분야 전문가인 SV 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을 만났다. 베이징 왕징소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고영화 고문은 코로나19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속에서 인터넷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재택경제(宅經濟)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현규 특파원] 2020.04.01 chk@newspim.com

베이징대 한반도 연구소 연구원도 겸하고 있는 고영화 고문은 코로나19로 대학 캠퍼스가 봉쇄되는 바람에 자신도 지금껏 두 달 가까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고문

은 서울대 조선해양대 학사와 석사를 거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IT 신기술 전문가로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혁신센터(KIC) 중국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3년 사스(SARS)이후 알리바바 타오바오나 징둥 같은 기업이 탄생했 듯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재택소비와 재택근무가 중심이 되는 '재택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기업이 탄생할 겁니다". 고 고문은 재택경제에서 급성장할 분야로 신선식품 생방송 몰과 온라인 교육, 인터넷 원격 의료, 재택 근무 SW 분야 등을 꼽았다.

중국 IT 경제분야 분석 기관 이관(易观)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중 사람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인터넷 영상 사용시간은 35% 이상 급증했다. 고 고문은 "인터넷 게임도 급증했고 생방송 플랫폼에서는 인터넷 소개팅, 인터넷 디스코 클럽 등 신규 응용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고 소개했다.

고 고문은 이번 코로나19 기간중 인터넷 영상 이용이 증가한 가운데 각 플랫폼의 생방송 마케팅과 음식 배달수요가 급증했다"며 "이런 경향이 앞으로 인터넷 마케팅의 새로운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통가에는 최근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 신소매기업인 허마셴성이 이번 코로나 기간중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홈 쇼핑이 지고 온라인 생방송 쇼핑이 대세가 되는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 고문은 알리바바가 2018년 생방송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 징둥 핀뉘뉘 콰이서우 더우인 웨이신 등이 잇따라 라이브 생방송 마케팅에 가담했다며 생방송이 인터넷 쇼핑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현규 특파원] 중국 휘귀 외식 기업의 하이디라오 베이징 왕징점이 '와이마이(주문 배달)' 판매를 위해 물건을 진열해놓고 있다. 와이마이 음식 주문 배달 수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0.04.01 chk@newspim.com

이번 코로나19 기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 주민들은 평소에 비해 '와이마이(外卖, 음식 배달)' 서비스를 훨씬 많이 이용했다. 음식점들도 규모에 상관 없이 너도나도 와이마이 영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주민 격리와 거주지 통제가 강화되면서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 등에서는 와이마이 음식 배달앱 어러머(饿了么)가 아예 방역팀 식사를 전담해서 배달해 날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와이마이 음식 등을 올려놓는 무접촉 거치대가 설치되기도 했다. 고영화 고문은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 중 중국에서는 요리 주문도 늘었지만 요리의 기초 재료인 신선 채소와 생선, 육류 등 식자재 주문 수요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 고문은 "주민 생활 통제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중국 가정의 종전 관행과 달리 직접 요리를 하는 쪽으로 음식 소비 경향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선 식품 인터넷 몰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마이르요센(每日优鲜) 플랫폼의 경우 고객이 코로나 기간중 166%나 증가했다.

"학교문은 닫혔지만 대학과 초중등학교는 텐센트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정상 수업과 인터넷 보충수업을 실제 수업처럼 진행했어요. '팅커부팅쉐(听课不停学)', 즉 학교는 쉬었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은 거죠. 코로나19 기간중 사교육 분야 온라인 교육이 최대 327%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온 오프 종합 교육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 고문은 재택경제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분야로 온라인 교육을 꼽았다.

코로나19가 물러간 뒤에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인터넷 원격의료, 재택 근무 소프트웨어 관련 앱 등 원격 사무 관련 산업이 유망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 고문은 "이번 코로나 기간중에도 'AI 의사'가 환자의 DNA와 CT 영상 결과를 분석하는 등 맹활약 했다"며 "당장 평안하오이성(平安好医生)이라는 인터넷 의료 회사가 투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택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민간 경제 분야의 핫 키워드라면 공공 부문에서는 '신기건(新基建)' 즉 신형 인프라 건설이 최대의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3월 4일 경기부양 차원에서 신기건 7대 핵심분야를 발표했다. 5G 기지국,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AI, 특고압,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도시 철도 등이 그것이다.

구분	新基建 (신 인프라 건설)						
	정보통신망				에너지망		교통망
7대 핵심분야	5G 기지국	공업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특고압	신에너지 자동차 & 충전소	도시철도 & 철도교통
관련산업	기지국 광모듈 광케이블	로봇 클라우드 인공지능	IDC 서버 DB	인식기술 식별기술 AI 로직	송전설비 변압설비	충전소	철도설비 철로
기반기술	PCB, 반도체, 센서, 기초SW, AI 로직				제전설비 전력망 시스템 기체설비		

[뉴스핌 베이징 = 최현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건 (신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자료 =중국 화태증권]2020.04.01 chk@newspim.com

고 고문은 "중국이 추진하고 나선 신기건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4조 위안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한 것과 비교된다"며 "신기건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면서 동시에 신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신기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등은 4월 이후에 열릴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구체화 되겠지만 기존 집

행분을 포함해 50조 위안 얘기가 나오고 있다. 50조 위안은 중국 GDP 절반과 맞먹은 규모다.

"중국은 기준율 인하와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MLF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경제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어요. 이런 노력들이 경기대응에 있어 방어적인 조치라면 신기건은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보다 공격적인 경기대응 조치인 셈이지요". 고 고문은 이렇게 설명한 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막 시동이 걸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 고문은 "신기건이 당장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정책인 동시에 중국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성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 투자와 비즈니스도 앞으로 이 대목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예로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은 2025년까지 신 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2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번 신기건 정책 추진에 따라 충전소 망의 건설도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베이징=최현규 특파원 chk@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